



보도 시점

2026. 7. 19.(일) 11:00

배포

2026. 7. 16.(목) 16:00

7. 20.(월) 조간

농촌진흥청, 짐바브웨서 '아프리카 사료 곤충 혁신 국제회의' 개최... 미래 양계사료 혁신 가속화

- 지속 가능한 대체 단백질 공급원 확산 행사로 성황리 개최
- 곤충 기반 양계사료 기술 촉진 주제... 국제 전문가, 산업계, 농가 등 참석
- 사료 곤충 활용 시범마을 방문, 현장 중심 기술 정착 성과 확인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코피아(KOPIA*) 짐바브웨사무소가 주관한 '아프리카 사료 곤충 혁신 국제회의'가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짐바브웨 하라레 국제 컨퍼런스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KOPIA(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0rea Partnership for Innovation of Agriculture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도국에 대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과 자원의 공동개발을 통한 협력 대상국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혁신과 지속가능성: 곤충 기반 양계사료 기술 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짐바브웨 양국 주요 관계자 및 국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아프리카 양계사료 혁신 방안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KOPIA) 짐바브웨사무소는 짐바브웨 과학산업연구청(SIRDC)과 협력해 2017년부터 소규모 자작농의 소득 증대와 영양 개선을 위한 양계 경영 방법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와 기술 협력을 통해 짐바브웨 현지 기후에 최적화된 사료 곤충 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유용 곤충 활용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곤충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대체 단백질 공급원 및 유기성 폐기물의 순환 모델을 구축, 아프리카 현지 농가의 소득 증대를 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게 핵심 목표다.

첫날(16일)에는 오베르트 지리 짐바브웨 농업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바헤닝언대학교, 짐바브웨 과학산업연구청, 농촌진흥청 국립 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 양계 전문가 등 국내외 석학들이 핵심기술을 차례로 발표했다.

이어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관계자들이 각국의 ‘아메리카동애등에’ 사육 기술과 기반 현황을 입체적으로 비교·분석했다. 또한, 코피아(KOPIA) 짐바브웨와 케냐사무소 관계자, 국제곤충생리생태센터 전문가, 현지 사료 회사 및 ‘아메리카동애등에’ 생산 농가 대표들이 자리해 종합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사료 곤충의 최적 환경 조건과 효과적 사육 방안을 비롯해 기업과 농가를 연계해 사료 곤충을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 모델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둘째 날(17일)에는 짐바브웨 웨자 지역에 조성된 ‘아메리카동애등에’ 사료 곤충 생산 시범마을을 방문해 현지 농가들의 기술 전수 이후 사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하고, 양계 생산성 혁신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축산 사료비는 전체 가축 생산 비용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농가에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유기성 폐기물을 고품질 단백질 사료와 고부가가치 유기질 비료로 동시에 전환할 수 있는 ‘아메리카동애등에’ 기반의 순환형 바이오 경제 모델이 혁신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외농업기술과 이경희 과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아프리카 대륙의 사료 위기를 돌파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코피아 짐바브웨사무소가 추진해 온 성공 사례를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시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총괄>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	책임자	과 장	이경희 (063-238-1160)
		담당자	연구사	위치도 (063-238-1173)
공 동	국립농업과학원 산업곤충과	책임자	과 장	박홍현 (063-238-2931)
		담당자	연구관	박관호 (063-238-2994)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